

5070 몰려온다... 이통사, 앞다퉀 시니어콘텐츠 서비스

KT, '물루낭만' 등 시니어 전용관 외화영화 30편 더빙서비스 제공

SK브로드밴드, '비바시니어' 개설

LG유플러스, 'TV브라보라이프' 전문가 건강정보 콘텐츠 자체제작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실버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5070 세대를 겨냥한 콘텐츠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지난 10년간 '올레tv' 가입자 중 가장 오랜 시간 TV를 시청하는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은 인터넷TV(IPTV)에 시니어들을 겨냥한 콘텐츠를 탑재하며 시니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KT는 지난달부터 '물루낭만'이라는 시니어 전용관을 선보이고 있다. 중장



LG유플러스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하는 '50+유튜버스쿨' 참가자 모집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년층이 이용하는 만큼 메뉴를 빠르게 찾도록 재구성하고 화면을 키웠다. 자막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시니어를 위해 외화 더빙 서비스도 자체 제작한다. 영화 '라스트 미션'을 시작으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인턴' 등 우선 30여편이 제공된다.

프리미엄 서비스인 'SERICEO'도 올레tv에서 단독 제공한다. SERICEO

홈페이지에서 연간 160만원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했던 패키지 콘텐츠를 물루낭만에서는 원하는 강좌만 하나씩 골라 볼 수 있도록 200편 이상의 주문형 비디오(VOD)로 편성했다.

SK브로드밴드는 시니어 전용관 '비바(VIVA) 시니어' 메뉴를 개설해 시니어들도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LG유플러스는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U+tv 브라보라이프'를 제공하고 있다. U+tv 브라보라이프에서는 건강 정보를 서울대병원 전문의가 알려주는 자체 제작 콘텐츠 '우리집 주치의', 가고 싶은 국내의 여행지를 가보는 TV관광가이드 콘텐츠, 성공적인 제2의 삶을 응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50대 이상 유튜버 스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달 LG유플러스가 모집한 '50+유튜버 스쿨'이다. 50+ 유튜버 스쿨 참가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편집, 영상효과 등 필수 능력과 유튜버 채널 운영 노하우를 유튜버 인기 채널 편집 PD 특강과 유명 유튜버의 1대 1 멘토링을 통해 전수 받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뽑기 위한 최종 경쟁률은 68대 1에 달했다"고 말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이용자는 2017년 기준으로 약 669만명이며 전체 이용자 구성

중 50~60대 고연령층 비중이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니어층이 늘고 있다. 실제 와이즈앱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101억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실버 유튜버로는 손녀딸과 'Korea Grandma' 채널을 운영하는 박막례(73) 할머니가 꼽힌다. 채널 구독자 수는 89만6000명에 달한다. 박막례 할머니는 최근 구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 초청돼 구글 선다 피차이 CEO를 만나기도 했다. 구글 CEO와 박막례 할머니의 만남을 공개한 유튜버 동영상은 현재 조회수 30만회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새 시니어들은 이것저것 이용해보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이전보다 짧다"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며, 5060세대들의 입맛을 채우기 위한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고사리 손 '모내기 체험'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 자연학습장에서 열린 '도심 속 모내기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양천구청

韓-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11월까지 협상 타결 짓기로

한국과 필리핀이 3일 서울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오는 11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병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 부 장관과 한국-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알리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필리핀 통상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70주년인 만큼 협상을 신속히 추진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한-필리핀 FTA를 통해 각각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 동북아 지역에 포괄적 경제협력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양국간 교역·투자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 중 5대 교역국인 필리핀과 2018년 교역액은 156억 달러이다. 정부는 양자 FTA를 추진함으로써 신남방 정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 본부장은 "한-필리핀 FTA로 관세·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력을 촉진하는 핵심 틀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시장개방을 포함, 서비스·투자·경제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한-아세안 FTA 협정 개선의 일환으로 한-필리핀 간 상품분야 추가 자유화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국은 또 3일 같은 롯데호텔에서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경제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석대성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냉방비 부담 던다

산업부, 임시할인 등 3개방안 제시
전문가 토론회·11일 공청회 등 실시
국민 의견수렴 등 거쳐 이달 중 확정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각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방안인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제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



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같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확대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7천864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에서 월평균 4335원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제도 개편 시급”

>> 1면 '자본시장 활성화...서 계속

◆ 퇴직연금, 세계 개편 등 과제 산적
여전히 자본시장과 관련해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산적해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자

동투자제도) 도입 등이 담긴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이다. 현재 기금형 퇴직 연금은 정부 입법의 형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발의돼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 자산관리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제도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과생 상품·펀드·과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